

시가의 3배 1兆 제시... 거래무산 의도?

(1조218억원)

산업은행·미래에셋 주도 지나치게 높은 가격 책정
“호남 유일 대기업 다른 곳에 넘기려는 시도” 의구심
경제논리 보다 금호그룹 지역사회 기여도 감안해야

뉴스 초점

금호산업 매각가 說 난무

“1조원 넘는 금호산업 매각가, 박삼구 회장과 거래 무산 수순?”

지난 23일 금호산업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제시한 1조218억원의 매각가를 놓고, 채권은행들 사이에서도 섣불리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사 가치가 예상보다 크게 높아진 데다 여기에 과한 경영권 프리미엄마저 덧붙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 회장의 거래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매각가 제시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결론을 짓지 못해 산업은행에 거래를 위임했다. 이후 산업은행은 미래에셋과 협의해 23일 박 회장에게 가격을 제시했으며 다른 채권은행도 매각가를 당일 통보받았다. 이날 채권은행들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나왔다고 의문 섞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앞서 삼일회계법인 과 안전회계법인에 금호산업 실사를 의뢰한 바 있다. 채권단은 실사 가격에 경영프리미엄을 더해 우선청구매수권을 보유한 박 회장에게 거래 가격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았다. 실사 결과 금호산업 기업가치는 주당 3만1000원, 총 5300억원가량으로 산정됐다. 이때만 하더라도 업계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 30~40%를 더해 6890억~7420억원에서 금호산업 매각가격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내놓은 가격은 업계 예상보다 46%나 높은 1조218억원에 달했다. 23일 금호산업 증가 기준 3200억원가량에 시세가 형성된 금호산업 지분(50%+

1주)을 박 회장이 세 배가 넘는 가격에 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채권단 내부에서도 산업은행의 결정에 고개를 갇웃거리고 있다. 지난 5년간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 과정을 주도하면서 깊은 관계를 맺어온 산업은행 측이 거래 막판에 박 회장이 받아들이기 힘든 가격을 제시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채권은행들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통상 프리미엄인 40~50% 가격을 매긴 주당 4만3000~4만6000원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주가의 세 배에 달하는 가격을 제시했는데, 실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박 회장의 배임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아는데, 지난 5년간 배임 문제와 관련된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 갑작스런 매각가 급상승엔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산업은행이 박 회장과 거래 무산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예상을 하고 있다. 높은 가격 때문에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산업은행이 새 인수자를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뼈대나 다름없는 금호산업의 매각가가 1조원대를 넘어서자 지역 경제계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 산하의 산업은행이 ‘유일한 호남 출신 대기업’을 다른 곳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걱정 어린 시선이다. 특히 워크아웃을 졸업한 금호산업이 경영정상화에 들어가기까지 박삼구 회장의 노력이나 지역사회의 염원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만 금호산업 매각에 나서고 있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박 회장이 금호산업의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22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고, 무상감자에 동의한 부분도 매각 협상에서 감안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민들은 함께 성장한 금호의 재도약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산업 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7일부터 매각 협의에 들어간다.

/임동률기자xian@kwangju.co.kr



광주 도심에서 수영 즐겨요

‘2015 광주 판타지4 뮤직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 서구 상무조각공원 행사장 내에 대단위로 조성된 야외수영장을 찾은 시민들이 물 속에서 가족과 함께 더위를 식히고 있다. 광주일보가 주최하고 인터캐릭스디자인그룹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내달 9일까지 다채로운 쇼와 에어쇼 공연을 비롯해 각종 먹거리 존이 운영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88고속도 확장 연말 완공

추경, 11조5639억원 중 광주 176억·전남 1917억

목포~보성 철도 100억 증액

국회와 지난 24일 가결처리한 11조 56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광주·전남 현안사업비는 각각 176억원과 1917억원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8개 전남 현안사업의 사업비 1917억원을 반영시켰다. 세월호 인양 지원, 88고속도로, 진주~광양 철도 복선화사업 등의 사업비가 각각 406억원, 609억원, 412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특히 88고속도로 사업비 증액으로 국내 유일 2차선 고속도로 구간인 담양~성산구간의 4차로 확장공사가 연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목포~보성 남해안철도 건설(52억원→152억원) 100억원 ▲주암댐 도수터널 안정화 사업(14억원→164억원) 150억원 ▲광양 공업용수도 복선화 사업(14억원→154억원) 140억원이 각각 늘었다. ▲목포 대양산단 진입도로 건설(61억원→79억원, 18억원 증액) 등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관련 예산, 가뭄 대책 예산 등이 시·도 공통 예산으로 편성, 전남도에 일

부 배분될 예정이다.

88고속도로 담양~성산 구간의 4차로 확장공사는 올해 말 완공되며 이에 따라 운행시간은 30분(115분→85분), 운행거리는 10km(153km→143km) 단축될 예정이다. 남해안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전체 7개 공구 중 이미 공사를 재개한 터전공사 구간인 2개 공구에 이어 일반공사 구간 5개 공구도 올해 하반기에 보완설계를 거쳐 공사를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지역현안사업 4개 사업의 176억원을 확보했다. ▲광주순환고속도로 구간 4차로 확장공사(150억원→225억원) 75억원 ▲지방하천정비 (78억원→92억원) 14억원 ▲재해위험지역정비 (21억 9000만원→27억 3000만원) 5억 4000만원,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140억원→222억원) 82억원 등이 각각 늘었다.

광주시는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로 도심권 교통량 분산 및 전남 4개 시·군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서구의회 ‘대규모 점포 규제 조례’ 개정 무산

광주신세계, 특급호텔 등 탄력 구의원들 “입점저지 나서겠다”

광주 서구의회의 ‘대규모 점포 규제 조례’ 개정이 무산됐음에도 관련 기관단체가 대형유통업체 입점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서구청과 광주신세계 등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서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조례 개정안은 찬성표가 과반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

서구청은 대규모점포 규제 조례 개정 부결을 계기로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 중소기업과 대형유통업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대화의 창구 역할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지역발전자문위원회를 열어 대규모 점포 입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광주신세계의 특급호텔 건립사업 추진 방향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한 뒤 중소기업인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신세계 역시 조례안이 무산된데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광주신세계 한 관계자는 “광주시와 신세계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추진하는 복합랜드 마크시시설만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제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 구의원들은 조례 무산과 별도로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옥수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꼼수’를 부려 조례안을 부결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상권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미래
The E-Class

Mercedes-Benz

신성자동차(주) 광주점

신성자동차(주) 광주점사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5-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환산 : E 200 199km, 1.639kg, 7G-TRONIC PLUS, 배연량 12.7km/l(도시상행) 10.5km/l, 31.4km/l(고속상행) 14.4km/l, 38.9km/l, 배연CO₂ 배출량 145g/km • E 220 CDI 2.143cc, 1.790kg, 7G-TRONIC PLUS, 배연량 16.3km/l(도시상행) 14.2km/l, 31.4km/l(고속상행) 19.8km/l, 18.9km/l, 배연CO₂ 배출량 120g/km • E 250 BlueTEC 4MATIC 2.143cc, 1.935kg, 7G-TRONIC PLUS, 배연량 14.1km/l(도시상행) 12.4km/l, 31.4km/l(고속상행) 17.0km/l, 28.9km/l, 배연CO₂ 배출량 140g/km • E 300 3.498cc, 1.790kg, 7G-TRONIC PLUS, 배연량 9.7km/l(도시상행) 8.4km/l, 31.4km/l(고속상행) 11.0km/l, 46.9km/l, 배연CO₂ 배출량 183g/km • E 300 4MATIC 3.498cc, 1.800kg, 7G-TRONIC PLUS, 배연량 9.1km/l(도시상행) 8.0km/l, 31.4km/l(고속상행) 10.9km/l, 50.5km/l, 배연CO₂ 배출량 190g/km • E 350 BlueTEC 4MATIC 2.987cc, 2.049kg, 7G-TRONIC PLUS, 배연량 12.6km/l(도시상행) 11.2km/l, 31.4km/l(고속상행) 14.7km/l, 38.9km/l, 배연CO₂ 배출량 150g/km • E 400 4MATIC 2.996cc, 1.935kg, 7G-TRONIC PLUS, 배연량 9.3km/l(도시상행) 8.1km/l, 31.4km/l(고속상행) 11.5km/l, 59.8km/l, 배연CO₂ 배출량 190g/km • E 63 AMG 4MATIC 5.461cc, 2.05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배연량 17.4km/l(도시상행) 16.0km/l, 31.4km/l(고속상행) 9.3km/l, 59.8km/l, 배연CO₂ 배출량 230g/km ※ 본 연비는 표준조건에 의한 연비로서 도시상행, 고속상행, 복합상행 및 혼합상행 등에 따라 실제 연비 차이가 있습니다.